

업무능률 향상에 합심노력

누락된 특수건물의 일소와 거수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인천지부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신규물건
발굴작업을 전개, 84년들어 10월말까지
모두 1백 54건을 발굴하여 특수건물
대상으로 잡는등 거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재 이 재 곤 <홍보 2과>

서울과는 불과 38km밖에 되지 않는 서해의 관문 인천은 이제 완전히 1일생활권으로 탈바꿈해 버렸지만 우리 들에게는 유원지나 항구, 해수욕장보다 오히려 6.25당시의 상륙작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인구 약2백만명의 항도 인천은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쓰라린 상처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계속 알차게 가꾸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나 그 이후에 개통된 전철은 인천지역의 산업발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에 충분했다. 협회인천지부가 자리잡은 곳은 중구 신흥동 3가의 정석빌딩 8층으로 시내 중심가와와는 약20분 거리이다.

11월하순의 바닷바람이 약간 쌀쌀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점검과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이었고 閔丙皓지부장과 몇 사람의 직원들이 워낙 따뜻하게 맞아주어 긴장을 덜수 있었다.

인천지부의 가족수는 모두 25명으로 썩 많은 편은 못된다. 아주 적당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한층 짜임새가 있어보였다.

이들이 업무과, 점검과, 계약과로 각각 나누어져 1천 4백여건(11월말 현재)에 달하는 각종 특수건물의 안전 점검과 보험계약업무를 처리해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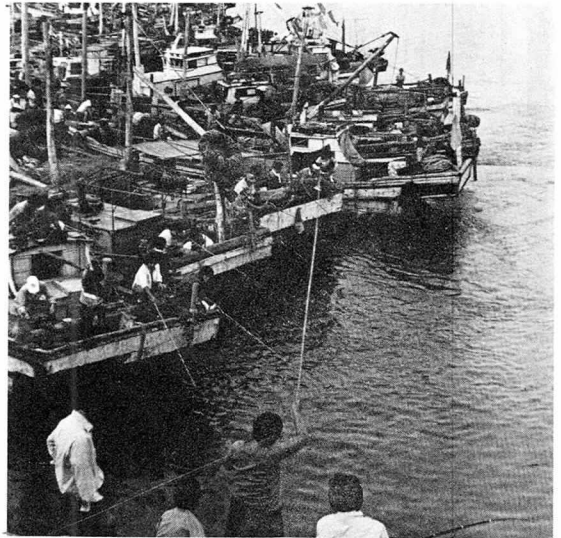
점검과 보험업무에 관한 한 항상 목표를 조금씩 웃돌고 있다.

84년중 인천지부내에 설치된 상담실을 통해서도 모두 60건의 점검업무와 보험업무에 관련된 질의와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특수건물 소유주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청, 구청, 소방서등 행정관서와의 협조도 어느 지부 못지않게 긴밀하게 이루어져 점검과 보험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소방대상물에 대한 보험가입권장」이란 협조문을 4층 이상의 건물, 공장, 공동주택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특수건물 소유주들에게 배포할 만큼 방재활동의 전개와 보험가입 유도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고 있다.

인천지부의 활동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락된 특수건물의 일소와 거수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인천지부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신규 물건 발굴작업을 전개, 84년들어 10월 말까지 모두 1백 54건을 발굴하여 특수건물 대상으로 잡는등 거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대민사업에서도 직장새마을운동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새마을청소, 자연보호 및 거리질서 캠페인, 농촌일손돕기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모범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지부는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 전 직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성금을 각출하거나 각종 휴폐지를 수집 판매해서 이것으로 기금을 만들어 불우한 학생에게 학자 보조금을 전달하는 한편 불우이웃을 찾아 이들을 위로, 격려 하는 인보사업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다.

인천지부는 지난 81년 7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부의 업무량도 늘어났다. 중소공장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인원으로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나 지부장이하 전 직원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거수실적 증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타지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각오들이 아주 대단하다.

